PR

관리번호
2016-PR-PR-15-468

K-water monthly magazine 2016 July vol.583

물, 자연 그리고 사람

SPECIAL
K-water 물 에너지

미래를 보는 시선
섬진강 지기 김용택 시인

댐과 호수 여행
천년의 지혜가 살아 있는
水려한 합천



K water

수돗물, 더 맛있게 효과적으로 마시는 법

물 마시는 간격



가장 맛있는 온도



수돗물 냄새 없애는 법



수돗물을 받아 하룻밤 정도 놓아두거나
물 1L에 20~30g짜리 숯 1~2개를 넣어두면
염소와 소독약 부산물이 날아가 물맛이 좋아진다.

물맛을 살려주는 식재료



자몽
물 1L에 슬라이스한
자몽 2~3쪽



오이
물 1L에 4등분한
오이 1쪽



천도복숭아
물 500ml에 4등분한
천도복숭아 1쪽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창간일 1968년 8월
통권 583호
발행일 2016년 7월 5일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홍보실(042-629-2247)
제작 대행 더북컴퍼니 **인쇄** 상림문화(주)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
실린 글과 사진은 K-water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K-water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2016 JULY

CONTENTS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물**

K-water 물 에너지 04

- 건강한 물, 건강한 에너지!
- 물 에너지 사업 확대로 물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물 에너지로 지구를 살리는 K-water의 힘!
- 미래 과학자를 위한 즐거운 에너지 공부

보다 풍요로워지는 **자연**

미래를 보는 시선	섬진강 지기 김용택 시인	14
WATER + CULTURE	물속에서 피어나는 판타지, 제나 홀러웨이	18
WATER + THERAPY	아쿠아 요가&아쿠아 엑서사이즈	20
댐과 호수 여행	천년의 지혜가 살아 있는 水려한 합천	22

더 행복해지는 **사람**

K-water人	문제 해결 통한 나와 K-water 동반 성장, 가장 큰 보람이죠	28
우리 부서 치어즈 업 ①	미래를 여는 고성수도센터, 공룡의 세계를 탐험하다!	30
우리 부서 치어즈 업 ②	해외 사업 성공, 해외기술2팀이 마타하리~	33
직원 맞춤형 PI	파워풀한 스피닝하며 즐겁게 운동하죠	36
우리 가족의 어떤 날	앞으로도 지금처럼 함께 여행하는 가족이 되자~	38
NEWS	K-water 소식	40
알아두세요	김해 신공항으로 영남 하늘길 넓힌다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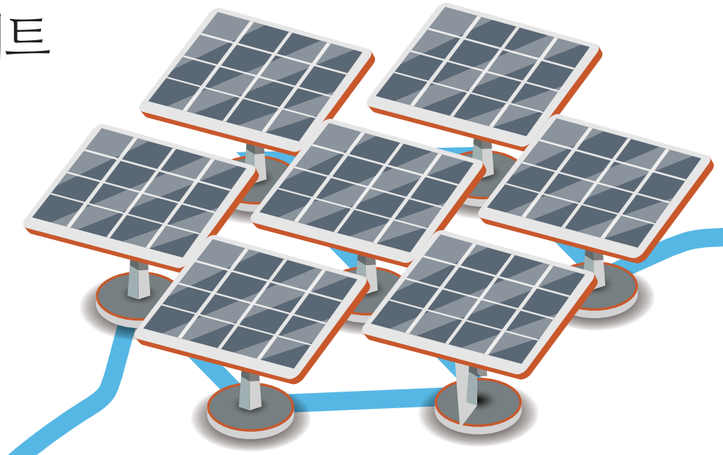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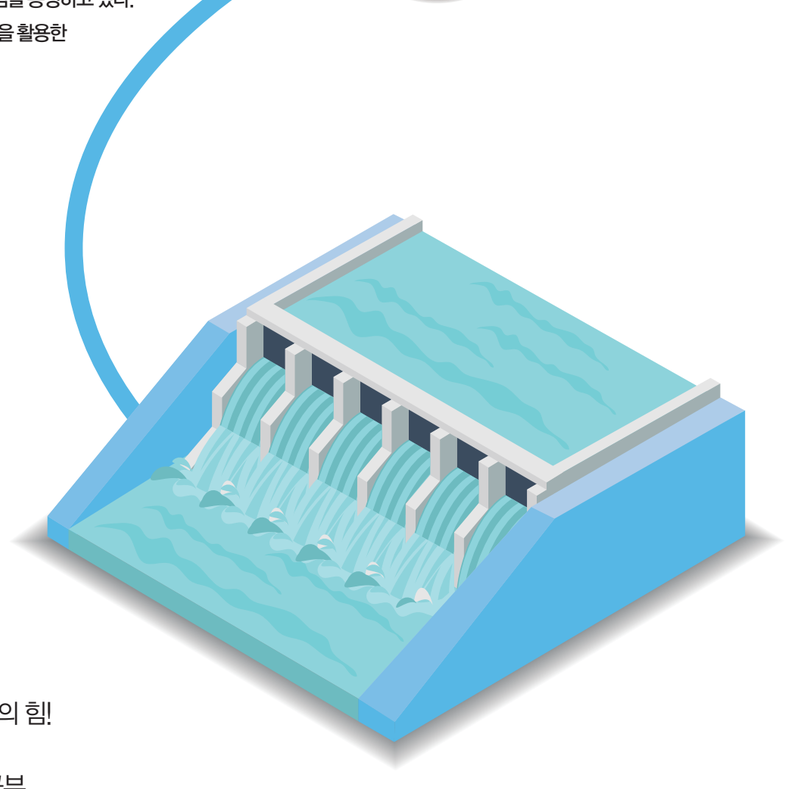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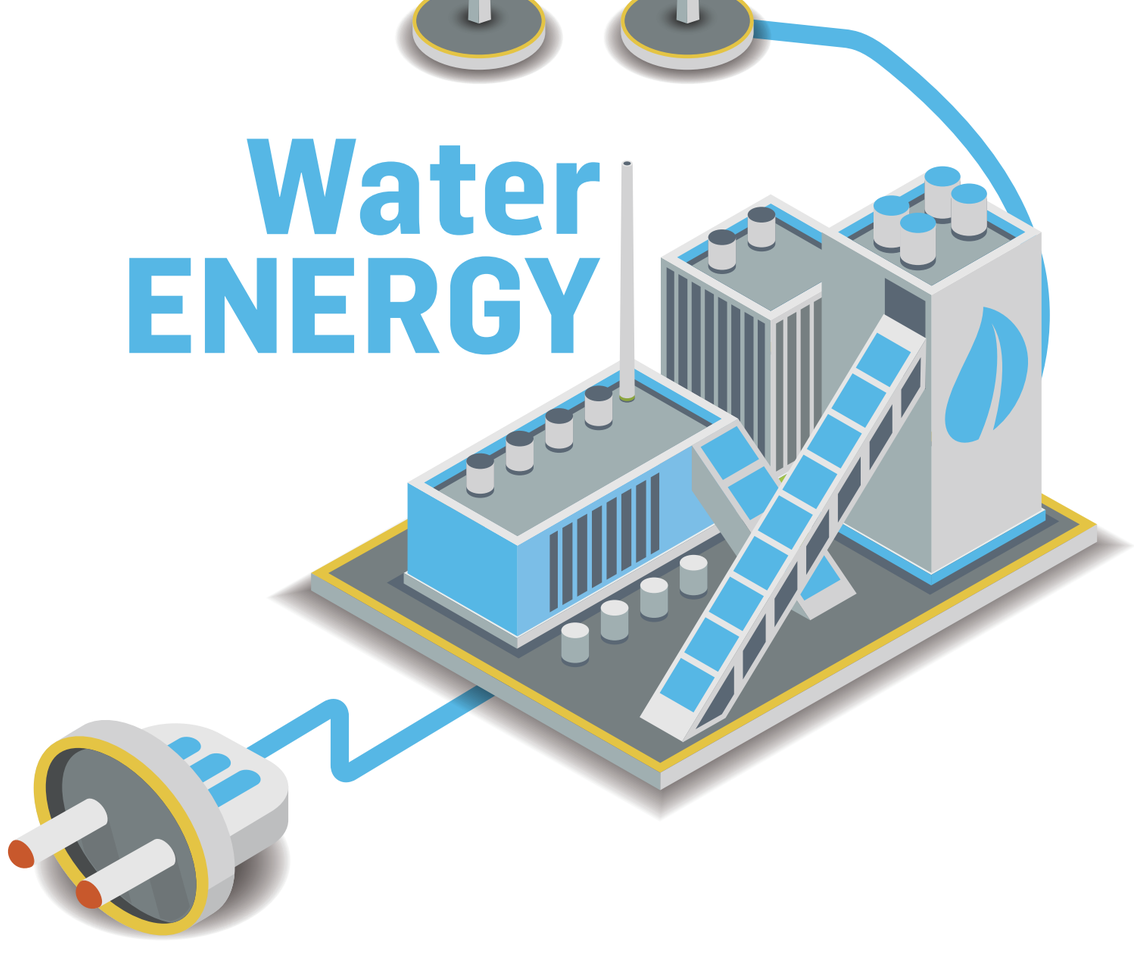
숨 쉬는 지구를 위한 CO_2 다이어트
K-water 물 에너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신기후 체제로 전환했다. 화석 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1970년대부터 수력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온 K-water가 본격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비전을 선포했다. 물로 특화한 에너지를 통해 국내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부다. 수력발전 기술은 파키스탄·이란 등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했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수상 태양광 역시 일본에 수출하는 등 K-water의 물 에너지가 미래 성장 동력임을 증명하고 있다. K-water는 수력, 조력, 풍력, 수상 태양광, 수열 에너지 등 물을 활용한 에너지로 물의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









SPECIAL 1 K-water의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열정
건강한 물, 건강한 에너지!

SPECIAL 2 K-water인이 말한다
물 에너지 사업 확대로
물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SPECIAL 3 K-water의 신재생에너지, 그 현장에 가다
물 에너지로 지구를 살리는 K-water의 힘!

SPECIAL 4 신재생에너지, 어디서 체험해볼까?
미래 과학자를 위한 즐거운 에너지 공부

SPECIAL 1

K-water의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열정

건강한 물, 건강한 에너지!

K-water는 1973년 수력발전을 시작으로 2006년 수열 에너지, 2009년 풍력발전, 2011년 조력발전, 2012년 소수력발전, 2013년 수상 태양광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특히 물로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K-water의 발걸음이 이제 시작됐다.



지구온난화를 막아라! '파리기후협약'

-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전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 체제'로
-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전환 예고



이젠 물 에너지다

- 물 에너지는 물 사업과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에너지로서
- K-water의 풍부한 수면 자원, 경제성, 발전 효율 면에서 물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

미래를 이끌어갈 K-water 에너지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다



대한민국,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

-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결정
- 2029년 신재생에너지 구성비 20% 이상 확보
- 태양광 집중 육성, 전체 신재생 설비의 50% 이상 구성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해온 K-water

- 국내 최대 수력발전 사업자: 국가 수력 설비의 61% 보유
- 세계 최대 조력발전 운영
- 세계 최초 댐 수상 태양광 상용화
-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 1위 기업
- 수상 태양광, 수열 에너지 등 물 에너지 분야 최대 개발 잠재량 및 선도 기술 보유





SPECIAL 2

K-water인이 말한다

물 에너지 사업 확대로 물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K-water가 올해 4월 에너지 비전을 선포했다. 세계 각국이 국가 성장 동력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쏟는 데 발맞춰 K-water 에너지 사업의 미래를 내놓은 것. K-water는 그간 축적해온 물 관련 기술과 설비 등을 활용해 물 에너지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너지처 홍정조 처장

에너지처 홍정조 처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과제이며,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블루오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를 저감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K-water는 여러 신재생에너지 중 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로 특화하여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국부 창출에 일조할 것입니다."

홍 처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외국에서는 매우 큰 이슈로 국가정책을 토대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와 정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정 기조를 유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선포했다. K-water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으로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기술 개발 등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에너지 비전을 최근 발표했다. "에너지 사업 비전에는 에너지 사업 지속 성장을 위한 3개 전략 방향, 9개 전략 과제, 26개 세부 과제를 도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 계획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K-water의 특화된 물 에너지 분야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 처장은 물 에너지가 다른 분야보다 환경 훼손, 민원 발생, 부지 확보 등의 문제가 적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 대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K-water는 풍부한 물 에너지 개발 잠재량과 역량을 보유한 만큼 K-water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댐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단순히 수상 태양광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댐 주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모델을 해당 지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마련해 국가적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정책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홍 처장은 얼마전 K-water의 수상 태양광 기술을 일본으로 수출했음을 말하며 앞으로 물 에너지를 통한 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일등 기업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K-water는 오는 2025년까지 소수력, 육상·해상 태양광, 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을 개발하는 데 1조2,259억 원을 투자해 355MW 개발, 누적 용량 1,701M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

K-water 에너지처 직원들이 말하는

K-water 신재생에너지가 최고인 이유!



세계 최대 조력발전? 바로 시화호 조력이죠!

정용수 차장(에너지 기획 담당)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설비 용량이 254MW로서 그동안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240MW)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조력발전소는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기에 강우와 상관없이 연간 일정량을 발전할 수 있다. 또 '죽음의 호수'로 불리던 시화호를 해수 유통을 통해 생태계 보고로 살려냈다.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살려낸 소중한 자원이다.

원수 배관만 있으면 어디서든 OK

정성엽 차장(풍력·수열 에너지 담당)

그동안 화훼 단지처럼 작은 규모에서 수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화력발전소도 수열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지역이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K-water의 수열 에너지는 호소수, 하천수 등 다목적댐의 수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원수 배관이 지나는 곳이라면 수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기에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별도의 배관 설치 비용도 들지 않는다.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한 수상 태양광

이동환 차장(태양광 실무)

우리나라 최초로 수상 태양광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도 성공한 K-water는 수상 태양광 분야에서 특허 기술을 8개나 보유했다. 태양광 기술이 발달한 일본도 수상 태양광만큼은 우리 기술을 사 간다. K-water의 수상 태양광은 견고해서 웬만한 태풍도 견딜 수 있고 친환경 기자재를 사용해 물을 오염시키는 일도 없으니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독보적!

이상훈 팀장(에너지기획팀)

K-water는 물과 연관된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수열 등 에너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K-water가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경험과 기술은 가히 독보적이다. 앞으로 K-water는 내부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물 에너지를 통해 수익을 낼 뿐 아니라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역이 될 것이다.

K-water 수력발전 덕분에 블랙아웃 걱정 NO!

김화영 대리(CDM/REC 실무)

K-water의 수력발전은 1,074MW로 국내 기관별 설비 용량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압도적이다. K-water 수력발전이 힘을 발휘하는 시기는 첨두부하, 즉 한여름이나 한겨울처럼 전력 사용량이 최고에 이를 때다. 만약 이때 빠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K-water의 수력발전이 없다면 블랙아웃(전국 정전)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여름에 전기가 끊긴다면? 생각하기도 싫다. 정전 고민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것. 바로 K-water 수력발전 덕분이다.

SPECIAL 3

K-water의 신재생에너지, 그 현장에 가다

물 에너지로 지구를 살리는 K-water의 힘!

K-water는 국내 수력발전 설비의 61%를 점유하고,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자타 공인 국내 1위의 물 에너지 기업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K-water의 물 에너지 현장을 소개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

바닷물의 조석 차이를 이용해 발전하는 조력발전은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 파괴가 없는 친환경 발전이다. 또 기온이나 기후,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2011년 8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연간 552,7백만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석유 86만2,000배럴을 수입해야 하는 양으로, 유가 환산 시 연간 약 1,000억 원의 유류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 또 연간 1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여기에 시화호 생태계 복원과 함께 서해안 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K-water는 시화호 조력발전 부근을 수도권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수상 태양광

K-water는 국내 수상 태양광 개발을 이끄는 선두 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합천댐에 100kW 규모의 수상 태양광 실증 플랜트를 설치한 이후 2012년 역시 합천댐에 500kW 규모의 상용화 모델 설치에 성공했고, 올 2월 보령댐에 2M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준공해 본격적인 수상 태양광 개발 시대를 예고했다. 2MW는 연간 7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보령댐 수상 태양광은 설치 전 3년 동안 환경 안전성을 검증해 수질오염이나 수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다. 육상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에 토지를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식생 훼손 등 환경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수상 태양광은 수면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육상 태양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면의 냉각 효과로 발전량이 10% 이상 증가하고 조류 발생을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 큰 수열 에너지

서울 잠실에 우뚝 서 있는 제2롯데월드에는 특별한 청정에너지가 적용되어 있다. 바로 하천수 또는 댐 저장수의 온도 차를 이용한 수열 에너지다. 여름에는 대기보다 5℃ 낮고, 겨울에는 10℃ 정도 높은 수온 차를 이용해 냉난방을 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20~5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물론 에어컨 사용 시 더운 바람을 내뿜는 실외기로 인한 도심 열섬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K-water의 수열 에너지는 전력 수요가 많은 도심의 경우 지하 3~5m에 매설된 광역 상수도 관로 내 원수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2롯데월드가 대표적 사례. 이곳 외에도 K-water는 대청댐 및 청주정수장, 성남정수장 등 K-water 사업장 열세 곳에서 수온 차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K-water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수열 에너지 공동 개발 협약을 맺고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K-water 역사와 함께해온 수력발전·소수력발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부과하는 RPS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K-water 역시 공급 의무 대상 업체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충당하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 바로 소수력발전이다. 소수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중 단위 용량당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고, 설비 수명도 길며,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또 전력 생산 외에 다양한 용도로 적용이 가능해 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 소수력발전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K-water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한 16개 보와 사업장을 활용해 소수력발전을 해오고 있다. 설비 용량은 시화호 조력의 20%에 불과한 반면, 발전량은 조력의 50%인 27만1,714MWh에 달해 연간 2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K-water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수력발전은 1974년 소양강댐에서 수력발전을 개시한 이래 현재 총 51개소에서 1,074MW를 운영해 연간 2,461GWh의 전력을 생산 중이다. 최근에는 댐 신규 건설보다 노후 수력발전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수력 현대화 사업과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water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력 선진 제작사와 기술 협약을 추진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보별 설비 용량

▶**이포보** 3MW ▶**여주보** 4.9MW ▶**강천보** 4.9MW
▶**함안 창녕보** 5MW, **창녕 합천보** 5MW ▶**달성보** 2.8MW ▶**강정 보령보** 3MW
▶**칠곡보** 3MW ▶**구미보** 3MW ▶**낙단보** 3MW ▶**상주보** 3MW ▶**백제보** 2.6MW
▶**공주보** 3MW ▶**세종보** 2.3MW ▶**죽산보** 1.2MW, **승촌보** 0.8MW

SPECIAL 4

신재생에너지, 어디에서 체험해볼까?

미래 과학자를 위한 즐거운 에너지 공부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체험장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을 하며 에너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전국의 체험장을 소개한다.



바닷물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까?
시화나래 조력문화관

조력발전소는 조수의 차(밀물과 썰물의 움직임)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설이다. 조차(潮差)가 큰 만의 입구를 방조제로 막아 바닷물을 가두고 수차발전기(대형 프로펠러)를 설치해 밀물 때 방조제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프로펠러를 돌려 전기를 만든다. K-water 시화나래 조력문화관에 가면 이 내용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놓았다. 이 외에도 터치 비전을 이용해 물이 흐르는 원리를 배우는 체험 코너, 버튼 하나만 누르면 조력발전의 원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볼거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전시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달이 만드는 무한 에너지'를 상징하는 달 전망대다. 360도 전면이 유리로 된 75m 높이의 달 전망대에 오르면 시화호와 대부도, 서해 바다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강화유리로 만든 바닥 창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면 번지점프를 하는 듯한 색다른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문의** 032-885-7530, tlight.kwater.or.kr



물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까?
양양 에너지월드

양양양수발전소에서 운영하는, 수력발전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에너지 체험장. 버튼을 누르면 양수발전소의 원리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수력발전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펌프와 수차도 있다. 아날로그 기구뿐 아니라 디지털을 이용해 에너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게임도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 수력발전 외에도 태양력, 풍력, 원자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 3D 영상관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영상을 상영하는데, 의자가 진동하는 4D로 상영해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문의 070-4034-2344

바람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까?
영덕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영덕 해맞이공원 위쪽에는 거대한 풍력발전기 24기가 돌고 있다. 풍력발전의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영덕군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태양·바람·물·지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성 원리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시설과 태양열을 이용한 창포 족욕탕 등으로 꾸몄다. 전시관 주변에는 영덕풍력발전단지, 바람개비공원, 하늘정원, 그린 어린이 놀이터, 항공기 전시장, 해맞이축구장,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시설과 함께 멋진 풍광으로 볼거리가 많은 휴식 장소로 손꼽힌다. **문의** 054-730-6114, tour.yd.go.kr



게임과 요리로 태양에너지 원리를 배워요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실증연구단지·산업단지·테마체험관을 갖춘 국내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연구·체험장이다. 테마 체험관에서는 각종 신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과 에너지 게임 놀이터, 바이오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연료전지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전기에너지의 흐름을 알 수 있고 태양전지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태양전지판을 이용한 축구 게임과 셰플러 태양열 조리기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수많은 태양전지가 놓인 태양정원과 연구단지도 볼만하다.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 **문의** 063-580-1400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 공공 건축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폐열 회수, 단열 냉각, LED 조명, 단열, 자연 채광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같은 규모의 일반 건물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70% 줄이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 및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토대로 나머지 30%의 에너지 수요를 자체 충당하고 있다. 건물 외관은 독특하게 모두 사선으로 설계했는데, 디자인적 요소뿐 아니라 일사량을 조절하도록 과학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관도 다양하게 갖춰 최신 신재생에너지 기술 제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
문의 02-3151-0562, www.seouledc.or.kr





저탄소 녹색 시범 도시 랜드마크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강원도에서는 강릉시 경포대 일대를 '저탄소 녹색 시범 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녹색도시체험센터는 저탄소 녹색 시범 도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래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주거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전시실이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해볼 수 있다. 숙박도 가능하며, 전기버스 등을 이용해 인근 경포호수와 오죽헌, 선교장 등을 둘러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문의 033-923-0200, greencity.gn.go.kr

분뇨 악취 대신 도시가스로 수익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가축 분뇨 처리장·인분 처리장·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뿜어내는 냄새 때문에 몸살을 앓던 마을이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변모했다.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가스·분뇨 찌꺼기)을 바이오 가스(메탄)와 퇴비로 변환하는 시설을 갖춘 것. 가축 분뇨·음식 폐기물 100톤을 처리해 하루에 도시가스 2,000톤을 생산하고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하수처리장에선 하루 평균 1,166kW의 전력을 생산한다. 소매곡리의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커뮤니티 센터에 가면 자원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 바이오 가스 생산 과정 등을 볼 수 있다. **문의** 1577-8866, me.go.kr



아이를 위한 테마형 체험 교육관
청주 에너지아!

아이들에게 지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IT 기반의 테마형 체험 교육관이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풀 스크린으로 상영하는 시네마에너지 동화극장, 놀이를 통해 태양·지열·수소·폐기물 에너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체험 코너, 가상의 로봇 행성 구하기 게임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미디어 아트, 에너지 탐험 여행을 통해 배운 신재생에너지를 다시 한 번 배우고 익히는 미디어 놀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청주시에서 운영.
문의 043-201-4867, energia.cheongju.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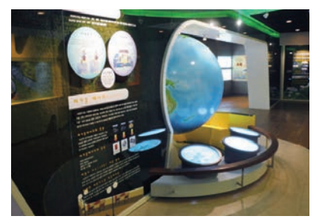


생활 속 에너지 절약법도 배워요
녹색에너지체험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에너지 체험관. 에너지 절약이 왜 필요한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은 무엇인지 다양한 체험·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용인, 대전, 광주, 대구에 있으며 광주 녹색에너지체험관에는 다양한 테마관과 신재생에너지 체험관이 있고, 대구에는 교실·운동장·음악실 같은 학생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테마로 꾸민 전시실을 지역별로 특색 있게 구성했다.
문의 031-260-4114, www.energy.or.kr

하수처리 과정까지 생생하게 공부
진해 에너지 환경과학 공원

진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멋진 팔각정 건물까지 갖춘 진해 에너지 환경과학공원은 풍력, 태양광, 지열, 조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에너지 테마파크다. 에너지 발전 과정, 신재생에너지, 매직 비전, 에너지 체험실 등이 있어 다양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며, 태양광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타볼 수 있다. 또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 시설인 거북선 태양열 목욕탕도 있다. 이 외에도 공공 하수처리 시설과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해 하수처리 과정을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다. 진해시에서 운영.
문의 055-712-0447, www.cwsisul.or.kr



김용택 시인

He is...

자신의 모교 임실 운암초등학교 마암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고, 섬진강 연작으로 유명해 '섬진강 시인'이라 불린다. 시집으로 〈섬진강〉, 〈맑은 날〉, 〈누이야 날이 저문다〉, 〈그 여자네 집〉, 〈그래서 당신〉 등이, 산문집으로 〈작은 마을〉,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 〈섬진강 이야기〉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윤동주문학대상 등을 수상했다.



강을 살리는 것이 바로 생태계 순환의 시작입니다

섬진강 지기 김용택 시인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작가는 여전히 그가 태어나고 자랐으며 일해온 섬진강 줄기를 떠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집에 '김용택의 작은 학교'라는 이름을 붙여 찾아오는 이들을 환한 웃음으로 반기고, 전국을 돌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김용택 시인을 만났다.

"내 모든 글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시작되고 끝이 날 것을 믿는다."
섬진강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얼굴, 시인 김용택의 말이다. 그에게 섬진강은 특별하기만 하다.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일했으며 시적 영감을 안겨준 섬진강!
지금은 그곳에서 '김용택의 작은 학교'라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 노후를 보내고 있으니 남다를 수밖에 없을 듯하다. 2008년 교사 생활에서 은퇴한 후 몇 년간 전주에서 지내다 두 달 전 농림축산부가 집을 새로 지어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김용택 시인에게서 고향으로 돌아온 푸근함이 엿보였다. 새 집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던 그가 갑자기 눈빛을 반짝이며 작은 연못 이야기를 꺼냈다. 집 안 한쪽에 물을 가두고 작은 연못을 만들었더니 그곳에서 생태계가 살아나더란다.
"그저 물이 흐르는 것이 좋아 작은 연못을 만들었는데, 금세 벌레가 생기더니 그 뒤를 이어 소금쟁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물장군, 물방개 등 계속 연못 식구가 나타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뭔지 아세요? 뱀이에요. 책상보다 작은 연못에서 저렇게 놀랄 정도의 생태계 생성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어마어마한 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용택 시인은 댐을 만들며 생긴 큰 호수에는 얼마나 놀라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겠느냐며 K-water가 그 신비한 세계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K-water가 강의 문화 콘텐츠 살리는 데 앞장서야

김용택 시인은 인류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강에 대해 국민이 더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water가 하천을 다루는 전문 기관인 만큼 강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K-water가 할 일이 많아요. 국토 개발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생태적으로 강의 영원성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섬진강에도 물 문화관이 있어요. 그런데 섬진강과 관련한 물 문화는 볼 수 없더군요. 수몰 지역 주민들 생활상을 생생하게 전시해놓으면 이곳 주민들이 예전엔 저랬구나 하며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김용택 시인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문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K-water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예산이 커지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잃는 경우를 자주 본 탓이다.
"생태 공원이라는 게 돈 들여 할 게 없어요. 자연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강도 저절로 흐를 때 생태계 순환 역할을 합니다. 공원을 만들어서 그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난 섬진강이 정말 깨끗하던 당시를 기억합니다. 그 강을 기억하는데 어찌 지금 이 구정물 같은 섬진강에 발을 담그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날도 너무 가물어요. 강이 마르면 인심이 흉흉해지는데 참 걱정입니다."

는 것만으로도 어린 세대가 보고 배울 게 많을 겁니다."
김용택 시인이 '김용택의 작은 학교'라고 이름 지은 것도 어떤 일이든 작은 걸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김용택의 작은 학교가 해야 할 첫 번째 사업은 주민들과 글쓰기 모임을 하는 것이다.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마을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 글쓰기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다.
또 자신의 집을 찾는 가족 단위 손님들을 대상으로 작은 강 체험도 해볼 계획이란다. 아이들과 강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고 그것을 글로 써보는 것이다.

도랑부터 살리려는 노력이 강을 되살릴 것

김용택 시인이 지내고 있는 집 바로 앞으로 섬진강이 흐른다. 그는 매일 새벽 4시 무렵이면 섬진강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어릴 때 두 손 가득 섬진강 물을 떠서 목을 축이던 그이지만, 섬진강에 발을 담그지 않은 지 25년이 돼간다.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난 섬진강이 정말 깨끗하던 당시를 기억합니다. 그 강을 기억하는데 어찌 지금 이 구정물 같은 섬진강에 발을 담그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날도 너무 가물어요. 강이 마르면 인심이 흉흉해지는데 참 걱정입니다."
김용택 시인은 문명의 기원, 인류의 젖줄인 강을 살리기 위한 자신의 묘안을 제시했다. 그 첫째가 마을마다 존재하는 하천에 하수 종말처리장 시설을 갖추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강 주변의 쓰레기를 없애는 것이다.
"도랑부터 살려야 강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수 종말처리장이에요. 마을에서 나오는 폐·오수를 거를 수 있는 하수 종말처리장을 작은 마을마다 설치해놓으면 강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자연히 강이 살아납니다."

김용택 시인은 지난해 열린 K-water의 섬진강 비전 선포식에도 참여했다. 강을 관리하는 데 유관 기관이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첫 번째 할 일로 쓰레기 치우기를 꼽았다. 쓰레기가 가득한 강은 오염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도 찾지 않아 죽은 강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러면 못써!'가 주는 교훈

"요즘은 지자체마다 인문학 강좌를 여는 곳이 많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의 목표는 인문학 소양을 키워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관심을 모아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게 하는 것, 거기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기쁘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용택 시인은 요즘 형편이 더 나아졌음에도 "살기 힘들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가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제 나름대로 사는 법을 잊어버리고 이웃과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 힘들 수밖에 없다고.
"저녁이면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 먹는 행복을 느낀다면 아이들도 경쟁하는 사회보다 함께하는 사회가 더 낫다는 것을 은연중에 깨달을 겁니다. 요즘 왜 밖에서 멘토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바로 자녀의 멘토가 돼야 합니다."
김용택 시인은 서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람이 그러면 못 써!"로 요약할 수 있다며 웃었다. 어른들이 "공부만 잘하면 뭐 해. 사람이 돼야지"라고 했던 말이 맞단다.
"일상의 행복을 퇴직 후로 미룰 것인가?" 되묻는 김용택 시인의 말처럼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픈 마음이 샘솟는 하루였다. K







물속에서 피어나는 판타지, 제나 홀러웨이

세계 최초 여성 수중 사진 촬영 작가이자 수중 연출 사진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나 홀러웨이(Zena Holloway)'.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양식을 발전시킨 거장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본다.



Sleeping Beauty 중 'Fashion'



Unique Underwater Sets 중 'Fashion'

"수중에서 이미지를 창조하는 작업은
규제받지 않는 영역(unchartered territory)을
탐색하는 것과 같다. 나는 수중 작업이
가져다주는 황홀한 경험(the magic)을 좋아한다."

- Zena Holloway

"물은 캔버스, 빛은 물감이다." 세계 최초로 수중 사진을 전문으로 찍은 여성 작가 제나 홀러웨이의 말이다. 제나 홀러웨이는 현존하는 최고의 언더워터 포토그래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와 뛰어난 연출력으로 물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환상적인 순간을 담아낸다.
물의 중력을 이용해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순간들을 촬영하는 그의 사진은 물속 신비로움과 피사체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하얀 꽃잎과 춤추듯 회전하는 여성이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지는 '에인절스', 사랑스러운 물속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더 워터 베이비스', 두 시리즈는 제나 홀러웨이를 상업적 사진작가에서 예술적 아티스트 반열에 오르도록 만들어준 대표작이다.



AD 중 'Shangri-la'



The Water Babies 중 'Meeting'

시원한 물속이라면 한여름 운동마저 상쾌하다 아쿠아 요가&아쿠아 엑서사이즈

한여름 운동은 생각만 해도 덥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시원한 물. 아쿠아 피트니스(aqua fitness)는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말한다. 국내에는 아쿠아 요가를 비롯해 아쿠아 킥복싱, 아쿠아 엑서사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아쿠아 요가, 허리·관절 통증이 지상운동의 6분의 1 수준

아쿠아 피트니스는 유럽에서 시작해 수중 재활 운동으로 발전하다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효과 높은 운동 프로그램으로 널리 보급됐다. 국내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여 년 됐다. 아쿠아 피트니스는 같은 동작을 했을 때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 몸에 무리가 덜 가는 장점이 있다. 평소 불편하던 허리나 무릎 관절이 물속에서는 괜찮게 느껴지는 것이다. 실제로 물속 부력에 따른 관절 충돌은 지상 운동의 6분의 1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아쿠아 요가는 부력과 수압, 수온, 저항 등을 포함한 물의 특성을 이용해 지구력과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과 신체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다. 직장인에게 많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통증을 줄여주고, 여름밤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여름철에도 땀 흘리지 않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도심 스포츠센터나 휴양지 스파 등에서 배울 수 있다.

아쿠아 엑서사이즈, 운동 효과 커 남성에게 인기

최근에는 젊은 남성이 무리 없이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쿠아 엑서사이즈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운동 효과가 두 배 정도 높아 근력 운동을 하려는 남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포츠센터 내에 전문 강좌도 늘고 있다. 반신 욕조 안에 실내 자전거를 부착한 형태의 가정용 아쿠아 엑서사이즈 장비도 국내에 도입되었다. K

아쿠아 피트니스에 대한 궁금증

Q 아쿠아 피트니스를 하려면 수영을 잘해야 한다?
아쿠아 피트니스는 가슴 높이 정도의 수심에서 걷거나 달리거나 점프하는 동작을 하는 운동이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론 얼굴을 물에 담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중이염이나 비염이 있는 사람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Q 운동 강도가 세다?
물속에 서 있는 자세로 운동하기에 지상에 비해 저항이 크다. 하지만 운동 방법에 따라 물의 저항을 약하게 할 수도 있어 체력에 맞춰 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Q 여성이 하는 운동이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아쿠아 피트니스 프로그램은 아쿠아 에어로빅(아쿠아로빅)이다. 여성만 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아쿠아 피트니스 중에는 아쿠아 복싱, 아쿠아 엑서사이즈 등 운동 효과가 큰 프로그램도 있다.



천년의 지혜가 살아 있는 水려한 합천

합천은 산과 물의 고장이다. 첩첩으로 둘러싼 높은 산과 그 속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모여 호수와 강과 늪을 만들었다. 그 수려한 경관 속에 합천의 상징인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이 있다.









1 합천의 관광 명소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합천호.

2 합천을 가로지르는 황강에서는 7월 말이면 신나는 수상 레포츠 축제가 열린다.

3, 4 아천천의 배후 습지인 정양늪은 다양한 수생생물의 서식지로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높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날 합천을 찾았다. 합천댐 정상 부근에는 보슬비가 내렸고, 읍내에는 해가 쨍쨍했으며, 해인사에는 운무가 가득했다. 습하고 끈적거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쾌적했다. 높고 험한 산이 중첩해 있는 합천의 지형 덕분이다. 합천 동부는 낙동강이 흐르고, 그 외 지역은 가야산과 매화산, 비계산, 두무산, 오도산, 황매산 등 수많은 산이 우뚝 솟아 있다. 물론 그 때문에 너른 땅이 없어 가난한 고장이었다. 그나마 해인사에 기대어 근근이 살던 합천 사람들이 눈을 돌린 것이 축산이었다. 합천군은 1990년대 중반 '황토 먹인 한우'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사료에 황토를 섞어 먹이니 효소·미네랄 등이 대사 작용을 하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육질이 부드러워지며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졌다. 한우와 함께 돼지고기도 유명하다. 우리 고유의 품종을 전통 사육 방식으로 기른 합천 흑돼지는 비타민 B_1·B_2·E를 다량 함유하며, 비계가 적어 숯불에 구우면 고소하고 쫀득한 맛이 난다.

합천군의 일등 효자, 합천댐

그나마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합천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낙동강 지류의 황강 부근.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황강이 범람해 논과 밭이 잠기기 일쑤였다. 언제까지 하늘만 원망할 수는 없는 일. 농경지 홍수 피해도 줄이고, 합천군·함안군·창원시 등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88년 합천댐을 건설했다. 이로써 생긴 합천호는 계절마다 색다른 풍광을 자랑하며 합천 8경 중 하나로 떠올랐다. 합천읍에서 황강을 거쳐 합천호로 이어지는 봉산면까지 백리길이 봄이면 온통 벚꽃으로 물든다. 꽃이 지면 무성한 잎과 가지가 터널을 이루고,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눈을 즐겁게 한다. 합천호 둘레길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합천호와 산허리를 끼고 도는 길이 약 40km에 걸쳐 있는데, 동서로 길게 황강을 끼고 병풍처럼 이어진 그림 같은 능선을 감상할 수 있다. 관광 명소로 효자 노릇을 하던 합천댐이 이제는 수상 태양광으로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며 환경 지킴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 K-water는 2011년 세계 최초로 합천호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해 물과 태양을 이용한 전기를 만들고 있다. 현재 3기까지 건설했으며 총 700k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연간 2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1 통도사.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찰인 해인사.

2 가을이면 단풍에 비친 계곡물이 붉게 보인다는 홍류동 계곡.

3 중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 드라마 촬영장인 영상 테마파크.

물길 따라 시간 여행

합천댐이 들어선 곳이 심산유곡인 탓에 주변에는 볼거리가 많다. 대표적인 곳이 황매산. 봄이면 철쭉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다. 보조 댐 인근의 영상 테마파크도 빼놓을 수 없는 방문 코스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지던 곳에 영상 테마파크를 조성해 관광객에게 시간 여행을 선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거리, 1970~1980년대 서울 거리 등은 중년층의 향수를 자극한다. 드라마 〈각시탈〉, 〈빛과 그림자〉, 〈에덴의 동쪽〉과 영화 〈고지전〉, 〈써니〉, 〈동주〉, 〈명탐정 홍길동〉 등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물 고장답게 합천읍으로 가면 황강과 정양늪이 기다린다. 백사장이 고운 황강은 합천 시민의 즐거운 놀이터. 매년 7월 말, 황강에서는 수상 레포츠 축제가 열린다. 합천댐에서 수위를 조절·방류해주어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 황강 지류 아천천의 배후 습지인 정양늪은 다양한 동식물 서식지로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덱을 따라 습지를 돌다 보면 무리 지어 자라는 줄, 마름, 노랑어리연꽃, 검정말, 각시붕어 등 다양한 수중 생물을 만날 수 있다. 이날도 물뱀 가족이 연잎 위로 올라와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극락으로 가는 길

합천 하면 해인사를 빼놓을 수 없다. 통도사,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찰로 꼽히는 해인사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 그리고 석등, 삼층석탑 등 국보급 문화재가 있다. 태조 이성계가 강화도에서 제작한 팔만대장경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 때문에 해인사로 옮겼는지 확실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성계의 선택은 훌륭했다. 강화도는 조선 시대 말 외세의 침략에 시달린 반면, 해인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도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아 결과적으로 팔만대장경을 무사히 보전했으니 말이다. 대장경을 봉안한 장경각의 내부는 공개되지 않지만 자태만으로도 절로 경건해진다. 해인사에서 가야산 입구까지 이어지는 홍류동 계곡은 가을이면 단풍에 비친 계곡물이 붉게 보인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여름에는 금강산의 옥류천을 닮았다 해서 '옥류동'으로 불린다. 계곡 옆으로는 나무 덱과 포장이 잘된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삼라만상이 소통·교감할 수 있다는 의미로 '소리길'이라 일컫는다. 여기서 소리(蘇利)란 '이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불교에서는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이른다.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물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에 모든 번뇌가 씻겨나가는 것 같다. 한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지금, 예가 바로 극락 아니겠는가. K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합천의 아름다운 풍광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travel tip



함벽루

황강 기슭에 자리한 함벽루는 고려 때 창건한 이후 수차례 중건했는데, 오래도록 묵객들이 함벽루에서 풍류를 즐겼다. 누각 내부에는 퇴계 이황, 남명 조식, 우암 송시열의 글이 걸려 있다. 함벽루 바로 옆에 있는 연호사는 선덕여왕 때 조성한 절로, 함벽루와 어우러지는 풍경이 매력적이다.



삼가면 한우타운

합천의 한우가 입소문을 타면서 큰 우시장이 있는 삼가면에는 한우 식당 단지가 형성되었다. 삼거리식육식당이나 영남·실비·미로 식육식당 등이 30년에서 최고 45년의 경력을 자랑한다. 2~3곳의 식당이 함께 매일 소를 도축해 신선한 생고기를 당일 판매한다.



대장경테마파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대장경의 우수성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장경테마파크다. 팔만대장경의 제작 동기와 과정, 보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어 아이들 체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어른에게도 대장경의 신비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

문제 해결 통한 나와 K-water 동반 성장, 가장 큰 보람이죠

재무관리처 회계세무팀
최태연 차장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급격히 늘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해 K-water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펼치는 가운데 재무관리처 회계세무팀의 활약이 빛을 발했다. 까다롭기로 이름난 자산 손상 인정을 통해 조세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 재무관리처 회계세무팀 최태연 차장이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투자비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K-water는 채무 원금 분담 등에 따라 6조5,000억 원에 이르는 회계상 대규모 자산 손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법은 부당한 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천재지변·화재 등의 손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산 손상을 인정했다. 결국 회계상 당기순손실이 있었음에도 자산 손상 전 순이익의 24.2%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 가능성이 높았다.

급박한 상황에서 재무관리처 회계세무팀은 일반 자산 손상과 달리 보다 포괄적이고 차별화된 관점에서 접근해 자산 손상 인정의 당위성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감사원 처분 및 조세 불복 사례를 적극 활용해 손상 인정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유사 사례를 발굴해 비교·검토하는 등 국세청을 수시로 방문하며 보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K-water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올 3월 29일 정부에서 4대강 자산 손상을 전부인정한다는 의결을 발표했다. K-water는 이를통해 재무 건전성 악화 방지 등 4대강 부채 감축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K-water 발전에 일조한 재무관리처 팀원들의 공

"세무소송은 우리에게 1%라도 하자가 있거나 논리가 맞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거액의 세무소송의 승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깎는 일이다 보니 그렇기도 하고 솔직히 정치적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재무관리처 회계세무팀의 최태연 차장은 세무소송은 역사가 짧아 예규가 적고 논리가 중요하기에 창의성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단 한 줄로 표현한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대를 설득할 논리가 다양하기 때문이란다.

"저희 팀원은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보다관련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전문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K-water의 문화나 현장에 대한 이해폭이 그들보다 훨씬 넓기 때문이지요."

1997년 입사한 최 차장은 "10년 동안의 현장 경험이 이번 일에 큰 도움이 됐다"며 "후배들이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힘들기도 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재무관리처에서 일하며 몰입의 즐거움을 깨달았다는 최태연 차장. "재무관리처 직원들이 다 같이 고생했는데, 제가 K-water인에 선정되어 쑥스럽기만 하다"며 모든 공을 팀 동료들에게 돌렸다. K

"창의적으로 폭넓게 사고하는 자질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K-water人

미래를 여는 고성수도센터, 공룡의 세계를 탐험하다!

서부 경남의 건강한 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경남서부권관리단에 소속된 고성수도센터. 2010년 9월부터 고성 지방 상수도를 수탁 운영하며 배수지 15개소와 가압장 14개소, 관로 644km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팀워크를 돈독히 하고 지역과 협력하기 위해 떠난 공룡나라 탐험을 소개한다.











고성수도센터는 작년에 관 노후 지역 관망 정비 및 누수 복구 등 관망 관리로 유수율 제고 등 고성군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차질 없이 실현했다. 이뿐 아니라 고객 체감 서비스인 검침 서비스 등을 개선해 고객 만족 우수 부서 표창을 받기도 했다.

올해도 ICT 기반 스마트(smart) 유량·누수 감시 기술을 도입해 유수율 제고 효율화를 꾀하며 사고 없는 안전한 설비 관리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고객의 수도꼭지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민의 청정한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는 만큼 지역 행사에도 힘을 보태는 고성수도센터는 고성의 대표 축제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전반적인 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고성군과 협력해 물 공급 시설을 확충하고, 병입 수돗물 미미르(Mimir)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엑스포 성공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 협력으로 성공 이끈 공룡엑스포, 제대로 즐기며 치어즈 업!

"고성의 자랑거리인 공룡엑스포를 즐기며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길 수 있었다." "이번 공룡엑스포 테마가 빛이라 밤에 꼭 와보고 싶었는데, 화려한 조명과 5D 공룡 영상이 정말 멋있었다."

지금까지 늘 지원만 하던 공룡엑스포를 찾아 '치어즈 업'을 도모한 고성수도센터 팀원들의 말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연사 축제로, 3년마다 열리는 엑스포 성공의 숨은 공로자인 만큼 즐거움도 남달랐다.

"올해까지 네 번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축제 기간 동안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돗물 공급과 비상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또 미미르 1만 병을 지원하고 수돗물 시음 행사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홍보했다." 고성수도센터를 든든하게 이끌고 있는 이화숙 센터장은 "치어즈 업을 통해 팀워크가 한층 돈독해진 느낌"이라는 직원들의 이야기에 "앞으로 더 소통하고 서로의 삶에 공감하면서 센터에 주어진 미션을 달성함은 물론, 팀원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찾은 엑스포에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부서의 화합과 지역 협력의 의지를 다진 고성수도센터, 앞으로도 티라노사우루스처럼 힘찬 행보를 기대해본다. K

공룡처럼 힘찬 우리 팀의 티라노사우루스 모두 모여!



'고성수도센터의 국가 대표' 이성준 대리

멀리 구미에서 전입해 온 이성준 대리는 비타민 같아요. 언제나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사무실에 활기를 불어넣고 고성수도센터의 축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지요. 못하는 게 없는 팔색조 같은 매력을 지닌 이성준 대리를 항상 응원합니다. by **김지한 대리**

'고성수도센터의 센터' 이화숙 센터장

고성수도센터는 이화숙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중심이 척추이듯, 센터장님은 고성수도센터의 척추 역할을 하며 균형을 잘 잡아 이끌어주십니다. by **박준원 과장**

구릿빛 '차시남' 김종철 과장

'차가운 시골 남자' 김종철 과장. 시크한 매력을 뽐내면서 배수지, 가압장 등 험한 사업장을 넘나들며 하루 종일 종횡무진합니다. 차도남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햇볕에 너무 많이 타서 '차시남'이 더 어울리는 센터의 슈퍼맨이에요. by **윤미영 과장**

'워커홀릭' 박준원 과장

명실상부한 이인자! '부센터장' 역할을 하는 박준원 과장님. 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과장님, 응원할게요~ by **김도호 주임**

'고성수도센터의 마지막 총각' 김지한 대리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관망 관리로 유수율 달성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누구보다 깔끔한 일처리가 최고입니다! by **이성준 대리**

'알고 보면 섬세한 남자' 김도호 주임

외모는 산적 같지만^^ 마음씨는 비단결 같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김도호 주임.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인 부드러운 남자 김도호 주임은 요즘 누수 탐사로 고생이 많습니다. 미래의 수자원을 이끌어갈 인재, 파이팅! by **이수재 계장**





'미소지움' 김원태 계장

사무실의 대표 얼굴! 출근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마주 보고 미소 지어주는 사람. 부처님 같은 미소와 조곤조곤 말하는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by **김종철 과장**

'매뚝~s' 이수재 계장

때로는 스피드 있게, 때로는 깔끔하게, 때로는 디테일하게, 때로는 스마트하게~ 늘 어른을 공경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줄 아는 이수재 계장의 매력에 감탄합니다. by **김원태 계장**

'잎새' 같은 윤미영 과장

팀의 살림을 도맡아 해결하는 고성수도센터의 안주인. 언제나 큰 그늘을 만드는 나뭇잎처럼 푸름과 시원함으로 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by **강진순 계장**

외유내강의 공룡 닮은 '강둘리' 강진순 계장

제일 어렵고 힘든 체납과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강진순 계장. 언제나 생글생글 웃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외유내강의 둘리와 닮았어요. by **이화숙 센터장**

해외 사업 성공, 해외기술2팀이 마타하리~

K-water가 아시아 각국의 물 관리 멘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해외기술센터. 해외기술1·2팀과 해외설비팀의 세 부서로 구성되어 최적의 기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해외기술2팀은 해외 상하수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술 전문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행보 중이다.







"올해 해외기술2팀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그간 팀원 모두의 헌신적 노력과 협력으로 한 해의 목표를 하나 둘 이루었다"는 오병근 팀장. 2014~2015년에는 모두 19건의 해외 사업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쾌거를 올렸는데, 기술 지원 시 사업별 전담반을 운영하고, 국내 기업 참여형 해외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대내외적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필리핀 불라칸(Bulacan) 상수도 사업, 인도네시아 팔렘방(Palembang) 배수 시스템 개선 사업, 덴파사르(Denpasar) 유수율 제고 사업과 함께 올해 새로 구성한 우즈벡·몽골사업단을 맡아 운영 중이라 해외 출장이 잦은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 하지만 햇살 좋은 날, 어렵게 시간을 잡아 해외기술2팀이 이태원에서 뭉쳤다.

일도 하고 〈마타하리〉 뮤지컬도 관람하며 일석이조 치어즈 업!

이날은 카자흐스탄 대사관과의 미팅과 함께 인기 TV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출연, K-water를 만방에 알리고 정든 K-water를 떠나는 최영관 차장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 "일도 하고 석별의 정도 나누며 부서 화합도 도모하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계획"을 짜라는 오병근 팀장의 미션을 받은 강영국 대리는 평소 음악을 즐기는 팀장의 취향을 저격(?)하고 K-water 밴드 리드 보컬인 최 차장을 떠나보내는 자리인 만큼 뮤지컬 〈마타하리〉 관람을 선택해 '엄지척'을 받았다.

"업무나 실적 부담 없이 온전히 팀원들과 마음껏 웃고 즐기는 시간이었다", "멋지고 소중한 팀원은 물론, 마타하리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한 이태원은 영원히 잊지 못할 꿈 같은 시간이었다"며 공연 후 이어진 뒤풀이까지 즐거운 추억으로 만든 '치어즈 업'한 해외기술2팀. 뮤지컬 관람 전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한 미팅을 통해 거둔 성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아세트 이센알리 부대사는 카자흐스탄의 소수력발전 사업과 물 관련 공기업을 소개하며 협력 가능한 사업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길 바랐다. 또 카자흐스탄 인재 교육에 대한 조언을 구해 와 K-water 내 글로벌 인턴십, 우리 연구원과 진행할 공동 연구 과제를 소개했으며, 2017년 세계 재생에너지 EXPO 준비 일정 논의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해외 사업의 성공은 우리가 마타하리~"라는 조창현 차장의 즉석 라임에 웃음보를 터트린 해외기술2팀. 지구촌 각 나라 사람들이 거리를 메운 이태원 힐링 타임을 통해 K-water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약을 다짐했다. K

준비된 미래는 칭찬에서 온다!



미소 만발 분위기 메이커 정유진 대리

남자 직원이 대부분인 해외기술센터에 정유진 대리가 짠! 등장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눈웃음이 매력적인 센터의 해피 바이러스죠. 맛있는 간식도 잘 챙겨주는 대리님, 늘 감사합니다. by 이재헌 대리

'신바람 최 박사' 최영관 차장

TV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깜짝 출연해 K-water를 알린 최영관 차장. 남들은 하나도 힘들다는 기술사 자격증을 5개나 소유한 인재로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겨 아쉬움이 크네요. 겸손과 성실로 무장한 최 차장의 선택에 박수를~ by 오병근 팀장

정중동 속 '보이지 않는 뿌리' 오병근 팀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외기술2팀이라는 큰 나무를 키우고 있는 뿌리 같은 오병근 팀장님! 카리스마 넘치는 부드러운 리더십, 행복한 업무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통해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by 정유진 대리

조용하지만 강한 면모를 기대하게 만드는 박신규 과장

우리 팀에 늦게 합류한 박신규 과장. 조용조용한 성격인 것 같지만 강인함과 유연함을 품고 있는 열정적 동료로 기대가 큽니다. 하반기에는 감추고 있던 재미있는 모습을 마주할 수 있길! by 김지웅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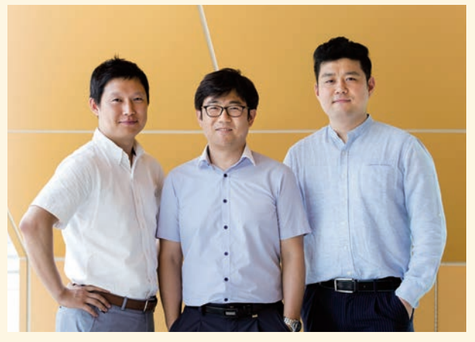
우리 팀 '최고 치어러(cheerer)'! 조창현 차장

밝은 미소와 허를 찌르는 유머로 팀 분위기를 이끄는 우리 팀 최고 분위기 메이커! 해박한 전문 지식과 업무를 대하는 조 차장님의 열정은 후배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by 박신규 과장

미래의 '카자흐스탄 과학기술부 장관' 벡잔 사원

카자흐스탄에서 물리학 석사를 마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카자흐스탄 엘리트 벡잔. 업무를 주면 다양한 각도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능력자! by 조창현 차장





영국 진출을 꿈꾸게 하는 '영국 신사' 강영국 대리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족 혈통을 이은 듯 인간관계와 업무에서 젠틀한 면모를 보이는 팀 막내 강영국 대리. 빈틈없는 업무 처리, 깔끔한 영어 구사는 K-water의 해외 사업이 영국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by 최영관 차장

해외기술2팀의 '스마트 가이' 김지웅 차장

여러 스마트 기기와 겨루어도 손색없이 스마트한 '스마트 가이' 김지웅 차장님. 해외 사업 설계, 사업성 검토, 검증된 영어 실력 등 해외 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스마트 기능 좀 나눠주세요! by 강영국 대리

'Mr. Lee is exemplary' 이재헌 대리

전문가의 포스가 물씬 풍기는 이재헌 대리님. 한국 생활을 낯설어하는 제게 EPANET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뛰어난 기술과 비밀을 공개해주었습니다. 책임감도 뛰어난 이 대리님을 통해 글로벌 K-water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by 벡잔 사원

파워풀한 스피닝하며 즐겁게 운동하죠

수도선진화처 방정호 과장은 올여름이 가기 전, 군살 제로이던 예전 몸매로 돌아갈 생각이다. 방 과장이 선택한 운동은 스피닝.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운동의 지루함을 잊게 하고, 칼로리 소모가 많아 운동 효과가 큰 점이 마음에 들었다. **촬영 협조** 챌린저휘트니스



다시, 20대의 단단한 몸으로!!
수도선진화처 방정호 과장

회사에 입사해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결혼하면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아빠가 되어 책임감이 커진 만큼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주위에서 닮았다고 말하는 연예인도 후덕한 이미지의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단단한 몸과 샤프한 이미지를 되찾으러 20대로 가는 타임머신 스피닝 자전거에 오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스피닝을 선택한 방정호 과장.
단기간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이라 기대가 크다.
경쾌한 음악이 스트레스도 날려준다.



스피닝은 고정식 실내 사이클에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그리고 강사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동작을 접목한 운동이다. 기존 실내 사이클이 단순한 유산소운동인 것과 달리, 역동적인 음악과 동작이 더해져 효과적인 전신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피닝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단기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 체중 감량 효과가 높다는 점이다. 방정호 과장이 스피닝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름이 가기 전에 확실한 체중 변화를 실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칼로리 소모가 많은 스피닝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40분 강습에도 땀이 비 오듯 흐르네요. 주중에는 업무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저에게 시간 대비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라 생각해요."

또 스피닝 프로그램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 파워풀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 음악과 조명이 함께해 힘들다는 느낌보다 신나게 땀 흘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기분이 들게 한다.

"이전에는 헬스처럼 혼자서 하는 운동을 했어요. 하지만 운동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효과도 더뎌서 한두 달 만에 그만둔 경우도 많지요. 전에 했던 운동과 달리 스피닝은 기분 전환 효과까지 있어요. 7~8곡의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동작과 구호를 외치며 하는 운동이라 지루하지 않아 좋아요."

방 과장은 일주일에 2~3회 규칙적으로 스피닝을 하고 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몸속 노폐물이 줄어들면서, 자전거 페달을 밟는 그의 움직임이 가볍기만 하다. "제게 잘 맞는 스피닝 운동으로 몸무게는 내리고 자신감은 올릴 겁니다. 파이팅!" K

스피닝 안전 운동법



스피닝은 실내 자전거를 활용한 운동이라 기구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다. 하지만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겠다고 처음부터 운동 강도를 세게 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다.
게다가 음악과 조명 때문에 격렬한 동작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발목이나 어깨 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피닝 프로그램을 하기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함께 여행하는 가족이 되자~

승마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K-water 교육원 국제교육팀 강희준 차장이 가족과 승마장을 찾았다.
매사에 활동적인 아빠와 아들, 도서관을 즐겨 찾는 엄마와 딸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은 바로 여행. 올여름 함께
떠날 섬 이야기를 하며 강 차장 가족은 무더위도 잊은 채 말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K-water 교육원 국제교육팀 강희준 차장이 준비하는, 가족을 위한 승마 체험

아내는 결혼 전 1년 가까이 전문 강습을 받을 정도로 승마를 즐겨 했어요. 부츠와 모자를 직접 장만할 만큼
좋아하던 승마였지만, 둘째 동욱이를 낳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고이 묻어둘 수밖에 없었죠.
신혼 시절 이집트에서 말을 타고 피라미드를 누비던 멋진 기억을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되살리고 싶네요.
승마 체험 얘기를 하자 아들 녀석이 무척 신나 하며 이렇게 묻더군요. "그런데 승마가 뭐예요?"^^ 중학교 1학년인
다은이도 처음 해보는 승마에 사뭇 긴장한 기색이더니, 막상 말을 타고서는 세상 가장 예쁜 미소를 짓네요.
추억의 승마 모자를 쓰고 말을 타는 아내의 환한 얼굴은 제 마음까지 행복하게 합니다.
가족 승마 체험은 처음이지만 가족 여행은 종종 다닙니다. 우리 부부는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가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시간 날 때마다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올여름에도 가까운 섬으로 가족 여행을 갈 생각입니다. 조만간 떠날 여행 이야기를 하며 더위도 잊은 채
승마장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어 쉽게 체험할 수 없던 승마를
이번 기회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보, 다은아, 동욱아~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 되자.^^

K-water monthly magazine
July 2016

NEWS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본격 분양

–

K-water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의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등 총 338필지, 12만2,889m^2를 분양한다. 이번 분양은 해양 레저 시설과 도심 운하 등이 특징인 송산그린시티의 첫 분양이라는 점과 올해 분양 계획 물량의 절반이 넘는 많은 양이어서 투자자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세한 내용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ater, 청렴 공기업 도약 워크숍 개최

–

K-water는 6월 17일 '청렴 재도약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공 부문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함이다.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현장 부서장의 역할과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청렴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2016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홍보 부스 운영

–

K-water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을 개최함에 따라 관람객에게 K-water 정부3.0 성과를 널리 알리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지난 6월 19~22일에 운영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는 정부3.0 핵심 성과물을 주제별로 100개 전시관에서 전시했으며, 데이터 활용 민간기업 및 정부3.0 사례 체험 존을 운영했다.

K-water는 우리 집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Smart Water City 서비스'를 주제로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형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건강한 물', '믿음직한 물', '똑똑한 물', '나눔의 물'로 나누어 전시했으며 Smart Water City 개념, 수돗물의 건강성 및 우수성, 토털 케어 서비스(방문 수질 검사, 옥내 배관 진단, 세척 지원), 시범 사업 및 성과 등을 대형 모니터를 이용해 홍보했다.

우리 동네 및 우리 집 실시간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워터 케어 앱을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작동하는 터치 키오스크를 활용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K-water 병물인 '미미르'를 배포해 K-water가 생산하는 수돗물 맛을 널리 알렸다.



때 이른 녹조에 대책 마련 나서다

–

K-water는 6월 9일 정부와 학계, NGO 등 전문가와 함께 '낙동강 수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상 고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녹조 등 낙동강 수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K-water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산학 협력으로 소프트웨어 기술력 강화

–

K-water와 GS건설(주), 고려대학교는 6월 30일 수도 분야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수도 분야 소프트웨어 기술과 정보의 교류,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이전,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모델 발굴과 상생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2026년 개항 목표로 신속 추진 김해 신공항으로 영남 하늘길 넓힌다

한 해 약 1,238만 명이 이용하던(2015년 기준) 김해공항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3,800만 명의 응대 능력을 갖춘 신공항으로 거듭난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김해 신공항으로 결론 났다. 6월 21일 강호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용역을 수행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따르면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항공 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 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해낸 합리적 결론"이라고 공식 발표했다.이로써 김해공항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영남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해 신공항은 단순한 보강 차원을 넘어 활주로와 터미널 등 공항 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신공항으로 변모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 대화'에서 "의뢰받은 외국 전문 기관은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김해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 내렸고, 정부도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이 국민의 축하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같은 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토부로부터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향후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은 김해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공항 시설과 접근 교통망 확충

이번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정부는 영남 5개 지자체와 합의를 거쳐 프랑스 ADPi에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 ADPi는 신공항 후보지 세 곳(김해, 밀양, 가덕도)에 대해 경제성, 안전성, 접근성 등 다각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

경제성 측면에서 김해 신공항은 동일 규모(활주로 1본)의 공항을 가덕도, 밀양에 건설하는 방안보다 훨씬 적은 비용(김해 신공항 4조1,700억 원, 밀양 4조5,300억 원, 가덕 7조4,700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전성의 경우 김해 신공항의 새 활주로는 돗대산, 신어산 등 북측 산악 장애물의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건설함으로써 기존 활주로의 이착륙 시 안전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봤다. 환경 측면에서도 가덕도는 해상 매립에 따른 해안 환경 훼손이, 밀양은 산지 절취로 인한 훼손이 발생하는 데 비해 김해 신공항은 기존 공항과 인접해 건설하므로 상대적으로 환경 훼손이 가장 적었다.

ADPi의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는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와 관련해 "기존에 나와 있던 옵션 2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로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계를 밟았다"며 "공항 운영과 접근·경제성 등 전략적 고려,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 비용과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김해공항에 3,200m급 활주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는 "영남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아쉬움이 크겠지만 관련 지자체들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온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결과를 수용하고, 건설적 제안과 협력을 통해 김해 신공항이 영남권은 물론 국가 전체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





물로 작동하는 건전지, 아쿠아셀(Aquacell)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약 3억kg의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무분별하게 건전지를 폐기한다면 건전지 안의 유해 성분인 카드뮴, 아연, 망간 등이 흘러나와 토양 오염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친환경 건전지를 개발했는데, 바로 '아쿠아셀(Aquacell)' 건전지다. 사용할 때는 동전 등을 이용해 하단의 스크루 캡(screw cap)을 돌려서 뺀 뒤, 물에 넣어두고 5분이 지나면 건전지를 꺼내 물기를 닦은 후 사용한다. 다만 아쿠아셀은 충전지가 아닌 일회용 건전지이며, 물에 담그는 것은 충전 과정이 아니라 건전지를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사용 후 다시 물에 넣어도 작동하지 않는다. 아쿠아셀은 일반 건전지와 달리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 재활용도 가능하다.